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망비번 포근해짐

제목 : 현대의 생활

나는 다른 주말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의 갤럭시스텝을 맞춰는 시간보다 약 한시간전도 일찍 일어나서 칫솔과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나의 친구들과 밖에 놀러 나갔다 우리는 태양스퀘어, 용산, 남산타워, 현창, KBS 등 진짜 많은 명소에 가봤기 때문에 그냥 탐험스퀘어나 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벽화점인 타임스퀘어, 나는 타임스퀘어에서 B1A4도 보았다. B1A4는 아주 인기 많은 연예인이다. 타임스퀘어에서 돌아다니다가 친구와 해어져서 점심을 먹고 또 다른 친구와 유원차 아파트 단지에서 스보드를 타며 놀다가 아끼그친 구가 다시 와서 공으로 왕따놀이를 했다. 이름처럼 나쁜 왕따가 아니라 가위바위보로 왕따를 정해서 왕따는 공을 뺏고, 다른 사람은 뺏기지 않게 패스를 주고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화서(그친구의 동생도움) 6학년 4명과 4학년짜리 동생들 3명 유원아파트에 사는 1, 2, 3 학년애들로 께서 팀을 나눠 피구를 했다 피구는 공을 던져서 상대방을 맞추고, 상대방은 피하거나, 잡으거나, 땅에 튀기고 막으면 아웃이 아니다. 이렇게 신나게 놀고 돌아오니 힘들었다. 다음에 도 이렇게 놀고 싶었다.